

■ 주요 뉴스: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 전월비 감소, 시장에서 12월 금리인하 기대는 증가

- 미국 상무부, 로봇산업 전폭 지원 Microsoft의 AI 매출 부진은 관련 논란 재점화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목표치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중국 11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 5개월 만에 최저. 내수 둔화 등이 반영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11월 ADP 민간고용 감소로 인한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주가 상승[+0.3%], 달러화 약세[-0.5%], 금리 하락[-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12월 금리인하 기대, 반도체 강세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화학 소프트웨어 관련주 매수 증가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11월 ADP 민간고용 부진 등이 배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4%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월 금리인하 전망 고조 등이 원인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 영향 등으로 약보합 마감

※ 뉴욕 1M NDF 증가 1464.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66.2원, 0.12% 하락). 한국 CDS 하락

		12/3일	12/2일	전일대비			12/3일	12/2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49.7	6,829.4	+0.30%	국채 금리 10y	미국	4.06%	4.09%	-2bp
	유럽	576.22	575.65	+0.10%		독일	2.75%	2.75%	-0bp
	중국	3,878.0	3,897.7	-0.51%		영국	4.45%	4.47%	-2bp
	일본	49,865	49,303	+1.14%	CDS 5y	한국	22bp	23bp	-1bp
	한국	4,036.3	3,994.9	+1.04%		중국	44bp	46bp	-2bp
	달러지수	98.87	99.36	-0.49%	위험 지표	EMBI+	-	274	-
유로화	1.1671	1.1625	+0.40%	VIX		16.08	16.59	-3.07%	
환율	엔화	155.25	155.88	+0.41%		WTI유	58.95	58.64	+0.53%
	위안화	7.0640	7.0712	+0.10%	원자재	구리	530.8	516.1	+2.85%
	원화	1,468.0	1,468.4	+0.03%		금	4,203.1	4,205.9	-0.0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11월 ADP 민간고용, 전월비 감소. 시장에서 12월 금리인하 기대는 증가

- ADP에 따르면, 11월 민간부문 고용은 전월비 3.2만개 감소하며 예상치(4.0만명 증가)를 큰 폭 하회. 이번 결과는 소기업의 감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자리가 12만개 감소한 반면, 대기업의 경우 9만개 증가. 이번 결과는 하반기 이후 고용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정부의 11월 고용보고서 발표 연기가 확정되었기에,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12월 FOMC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 이에 시장에서도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이 증가. 일례로 CME의 FedWatch는 12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89%로 제시
- 이 외에 11월 ISM 서비스 PMI는 52.6을 기록, 전월(52.4) 대비 소폭 오르며 9개월래 최고치. 다만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지수가 하락(56.2→52.9)하여 향후 부진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이 외에 9월 산업생산은 전월에 비해 증가세가 강화(-0.3%→0.1%)되었고, 9월 수입물가는 전월비 보합
- 한편,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시장의 높은 관심이 지속.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해직 국가경제위원장을 ‘잠재적 연준 의장’으로 언급하면서 차기 연준 의장에 해직 위원장이 지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
- 다만 일부에서는 해직 위원장이 연준 의장으로 지명될 경우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과도한 수준으로 이행할 수 있어, 오히려 정책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FT). 특히 과도한 금리인하 전망이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에 국채 매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재무장관, 대법원이 관세 위법으로 판결해도 유사한 관세정책 지속할 방침

- 베센트 장관은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낙관. 또한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다른 대체 수단을 강구하여 동일한 구조의 관세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설비투자 증가 기대 등으로 내년 경제를 낙관한다면서도 특정 부문의 부진을 고려하여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언급

■ 미국 상무부, 로봇산업 전폭 지원. Microsoft의 AI 매출 부진은 관련 논란 재점화

- Politico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경영진을 잇달아 만나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전폭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고 보도. 또한 행정부는 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
- 온라인 뉴스매체 'The Information'은 Microsoft의 상반기 AI 소프트웨어 매출이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에 관련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보도. 이는 AI 버블 논란을 다시 한 번 일으키며 Microsoft의 주가 하락(-2.5%) 초래. 다만, Microsoft 측은 해당 목표를 낮추지 않았다고 반박

■ Eurizon Capital,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될 경우 금융위험 증폭

- 금융자문업체 Eurizon Capital의 스티브 젠은 향후 12개월 기준으로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및 연준의 금리인하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험이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 특히 양국의 금리격차 축소로 향후 2~3년 안에 달러화당 125엔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

■ ECB 라가르드 총재,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목표치 부근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 라가르드 총재는 향후 수개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연율 2%) 부근에서 추이할 것으로 예상. 아울러 향후 가계 지출이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일 것으로 전망. 다만,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ECB의 전망에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고 언급

■ 중국 11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 5개월 만에 최저. 내수 둔화 등이 반영

- 11월 레이팅독 서비스 PMI는 52.1을 기록, 전월(52.6) 대비 하락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세부항목 가운데 미국과의 무역갈등 완화로 신규수출수주는 전월비 증가로 전환되었으나, 내수 부진 등으로 신규수주 증가율은 둔화. 고용 역시 부진한 국면이 지속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1월 4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 연준 보우먼 이사 발언
- ECB 권도스 부총재 발언, 유로존 10월 소매판매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전세계 단기 국채 발행 증가, 연장 비용 급증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구심 - 블룸버그

(Bond Investors Are Driving Governments Into Short-Term Debt)

- 전 세계 벤치마크 지수를 구성하는 국채의 평균 만기는 '14년 이후 최저(8.8년, Bloomberg). 이는 그 동안 각국 정부가 초저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뒤,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증가를 우려하여, 만기 단축을 추진했기 때문
- 특히, 영국과 일본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장기 국채 대규모 매수 기관(연기금 등)의 수요 축소 등으로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 또한 반복적인 단기 부채 연장으로 인한 위험 노출(금리 급등 등)로 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도 제기(T&D). 다만 미국 국채는 수요가 상당하여 관련 압박을 일정 수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

■ 미국 사모대출 위험성, 투명성 의문 제기 등으로 과장되었을 소지 - 블룸버그

(Private-Credit Fears Are Based on Four Myths)

- 최근 사모대출에 내재된 위험성 거론. 그러나 전체 사모대출(40조 달러)의 약 95%는 투자등급에 해당. 투자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레버리지 대출(leveraged lending)의 규모는 2조 달러에 불과하며, 전체 사모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 또한, ▲외부 기관의 사모대출 신용등급 평가 미 실시 의혹(실제로는 대부분 신용 평가 적용) ▲재무정보 등의 불투명성(심층 실사 수행 등으로 투명성 높은 수준) ▲ 사모대출 ETF의 거래 불가능성(실제로는 거래 가능) ▲ 금융시스템 위험 기증(사모대출 참여 기업의 지급능력이 대부분 은행보다 우수) 등도 제기되나 실제와 다름을 인식할 필요

■ 미국 금융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회의적 시각, 성장에 대한 의문 등이 반영 - 블룸버그

(The \$3 Trillion Stablecoin Link That's Got Wall Street Doubting)

-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후 단기 국채 수요 확대에 의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 기대 등이 제기. 그러나 JPMorgan 등 주요 투자은행은 회의적 입장. 이는 시장 기대(향후 몇 년 내 2조~4조 달러로 확대)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
- 또한 중소은행의 예금감소 초래 등 기존 은행시스템에 혼선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 이와 관련하여 연준 마이런 이사는 자국 내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화 자산 접근성 등을 이유로 수요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신흥국의 규제 당국은 자본유출을 우려하여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고려할 필요

■ 비트코인 약세,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 부각 - Financial Times

(Bitcoin faithful prepare for a bitter winter)

- 최근 비트코인 가격 급락 속에서, 비트코인 보유를 주요 전략으로 선택한 기업 Strategy는 배당·이자 지급을 위해 14억달러의 준비금을 확보. 이는 보유한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겨울(가격 부진 시기)을 견디기 위한 전략
- 문제는 '비트코인의 봄'이 존재하는지 여부. 비트코인 가격을 과거 최고가였던 12.6만 달러 이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내재적 동인은 부재. 달러화 가치를 훼손하는 재정적자나 정치적 무책임에 대한 우려가 매수의 이유가 된다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금이 더 적절한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 오히려 최근 비트코인 ETF에서의 자금 이탈로 '가격이 상승해야 유지되는' 투자 구조에 균열이 발생. Strategy 역시 주가 프리미엄이 유지되어야 자본조달과 비트코인 매입이라는 선순환 시행이 가능.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을 높이는 시장 동력이 약화된다면 이러한 전략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

■ '26년 세계무역 성장세, 트럼프 관세 여파 등으로 둔화될 전망 - 블룸버그

(Global Trade Growth Looks More Subdued in 2026 After Year of Trump Tariff Chaos)

■ 미국의 '관세 배당금' 지급안, 재정·경제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발상 - 블룸버그

(A \$2,000 tariff dividend for everyone? Bad idea)

■ 미국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 임기 중 최저 지지율(36%) 등으로 약화될 소지 - 블룸버그

(Trump Has Lost His Political Superpower)

■ 미국 트럼프의 금리인하 요구, 현실화 가능성 높지만 장기금리 영향은 제한적 - 블룸버그

(Trump May Get the Rate Cuts He Wants — But Not Cheaper Mortga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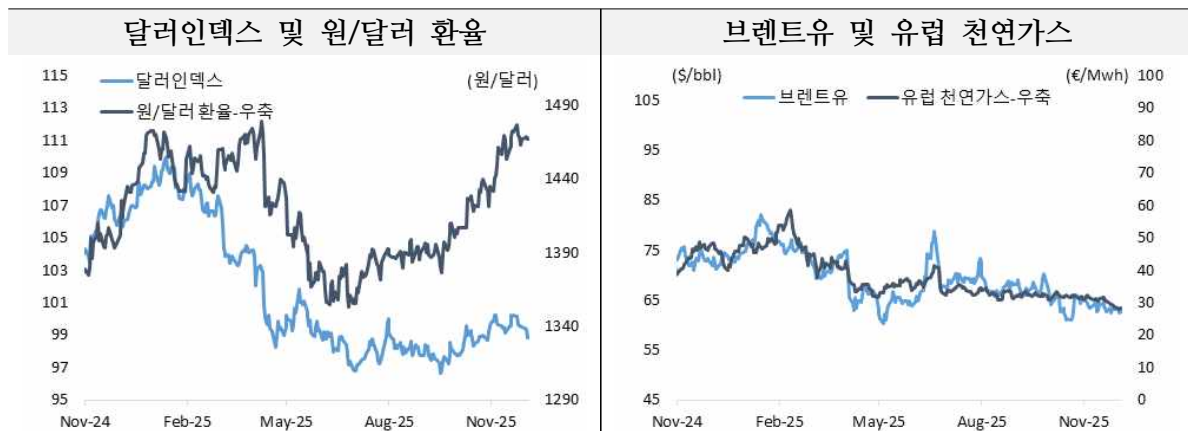
■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 시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더욱 강화 - WSJ

(A Newly Confident China Is Jockeying for More Global Clout as Trump Pulls Back)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